

---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4년 3월

# 휴먼리니즘

---

참가안내

---

## [철학] 생각하는 사람이

★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열혈 초딩이 던지는 질문들

## [역사] 역사 속의 재판들

★ 잊혀서는 안 될 재판을 현실로 소환하다!

## [진로] 꿈꾸지 않을 자유

★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흔한 진로교육에 대한 카운터펀치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글에 링크 된 신청 폼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4년 3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철학, 중등부 역사 온·오프라인 각 20만원(각 10강),  
고등부 진로 오프라인 10만원(5강)

▶ 후원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매주 일요일 1회, 2시간입니다.
2. 강좌 기간 초·중등부는 각각 총 3회, 고등부는 총 1회의 휴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강좌가 열리는 곳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망원역, 마포구청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8-3 (성산동 260-29) 1층

---

<h1>철학</h1> <h2>초등</h2>	<h3>생각하는 자람이 (10강)</h3> <p>★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던지는 세상에 관한 질문들</p>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p>&lt;오프라인&gt; 2024년 3월 3일~5월 26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p> <p>&lt;온라인&gt; 2024년 3월 3일~5월 26일 오후 1시~3시</p>
오리엔테이션	<p>※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p> <p>※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p>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 12살 자람이가 주변 친구들에게서 종종 듣는 핀잔입니다. 매사 질문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이 소녀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종으로 통합니다. 세상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인지 사사건건 따지고 들이받는 이 열혈 소녀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영 이상해 보였던 거죠.

<생각하는 자람이>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자람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철학의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고민해서 쓴 소설을 만화로 다시 구성했어요.

아무리 만화라고 한들,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지겨운 철학을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철학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이들이(어른들 역시!) 접해 온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탈을 쓴 또 다른 암기, 혹은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죽어있는 고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철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된 현실적인 것으로 고민할 수 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될 때 아이들은 개념에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아이들을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기로서의 혹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철학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철학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람이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는 일들에 속에서 건져 올린 알쏭달쏭한 질문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평범한 초등학생들 역시 충분히 공감할 만한 흔한 경험담들 가운데 있

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밥만 먹어도 알아서 자라지만, 마음의 키는 '나를 둘러싼 세상  
은 어떤 곳인가?'를 직접 맞부딪쳐 묻고, 답을 내려가는 과정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  
니다.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한 열혈 초딩의 머리 아픈 일상 속으로 함께  
따라가 보실래요?

.....

## 1강\_ 오리엔테이션: 철학이 뭔데?

생각하는 자람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철학 강좌입니다. 철학이라니~!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격적으로 자람이를 읽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수업의 의미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2강\_ 나를 잃어버린 날 :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게 정말 나일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 중에 아무도 자람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야, 나! ‘자람이’라고!” 아빠는 황당하단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람이란 이름이 너  
하나뿐이겠니?” 이쯤 되면 자람이조차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걸요?

생각하는 자람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나’, 곧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자  
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자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적인 조건(부모나 학교의  
강압)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를 자기화하는 실  
천으로서의 사고, 그 주인으로서의 주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 3강\_ 옛 친구 새 친구 : 기억나지 않는 그 녀석, 옛 친구일까 새 친구일까?

옛날에 시골 외가댁에 살았던 자람이. 7년 만에 그곳에 다시 갔더니, 글썄 침 보는  
시커먼 녀석이 반갑다고 영기지 뭐예요. 옛날에 나와 목욕까지 했던 사이라나? 그런  
데 나 빼고 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뭐예요!! 어머머, 웬일이니!!

두 번째 시간에서 아이들은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건  
내가 사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 4강\_ 진실은 어느 곳에 : 왜 서로의 진실이 어긋나게 되는 걸까?

애는 재를 좋아하고, 재는 개를 좋아하고, 개는 또 애를 좋아한다나? 근데 오해가 생겨 대판 싸움이 벌어졌네요. 가만, 왜 모두가 말하는 싸움의 이유가 다른 거죠? 아아, 사랑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람이네 반 두 친구의 추리소설 뽐칠 정도로 엇갈리고 꼬여버린 연애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의 진술을 종합하던 자람이는 결국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 시간은 '진실과 거짓말'이라는 소재를 통해 객관과 주관에 대한 이해, 진실의 조건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기 위해 짜였습니다.

## 5강\_ 좋은 아이 착한 아이 :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세희는 엄청 착한 아이인데 인기가 없어요. 연주는 엄청 이기적인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겪었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보통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독하게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겪은 이 혼란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 6강\_ 예정이의 선택: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

예정이가 학원 뽐뽐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자람이네 집으로 가출을 해왔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예정이와 이게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예정이 엄마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초, 중, 고, 대학, 직장생활, 결혼생활...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한 초등학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맞힐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다들 비슷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7강\_ 원래부터 나쁜 아이? : 문제아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승욱이는 자람이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다니는 통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해요~! 우연히 승욱이의 도움을 받게 된 자람이는 무서운 아빠와 함께 사는 승욱이의 속사정을 듣고 난 뒤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은 타고나길 선하거나 악한 걸까요, 살다보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일까요? 사회환경과 개인이 맺는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8강\_ 진짜 세상, 가짜 세상 : 게임 속의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자람이는 게임에 죽고 못 사는 남자애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고수 될 때까지 레벨 올리고, 아이템 모으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실제로는 다 쓸모도 없는 것들인데! 수업이 모두 끝나자마자, 오늘도 우리 반 남자애들은 피시방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실보다 더 끝내주는 가짜 세상을 향해서!

청소년들이 빠져 사는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창작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 세계입니다. 가짜 세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희귀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버 머니가 아닌 진짜 돈으로 제법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상은 모니터 안과 바깥을 넘나들며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가상의 체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연관을 맺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 9강\_ 진지한 얘기할 친구가 필요해: 세상은 너무 이상해! 나만 그래?

매사에 불만도 많고, 질문도 많은 자람이를 주변 친구들은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며 별종이라 생각해요. 자람이 자람이대로 내 고민을 같이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이 외롭고 답답합니다. 사실 자람이는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일들에 맘속으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자람이는 멀리에 있지 않아요. 아홉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람이를 만나봅시다.

## 10강\_ 행복과 불행 사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행복과 불행의 사이를 가로질러 어떤 세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h1>역사</h1> <h2>중등</h2>	<h3>역사 속의 재판들(10강)</h3> <p>★ 잊혀서는 안 될 재판을 현실로 소환하다!</p>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p>&lt;오프라인&gt; 2024년 3월 3일~5월 26일 오후 1시~3시</p> <p>&lt;온라인&gt; 2024년 3월 3일~5월 26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p>
오리엔테이션	<p>※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p> <p>※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p>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통해 죄인이 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처벌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재판들은 모두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죄인으로 판결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의 재판 결과를 무효로 돌리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그럼 역사 속의 판결을 어떻게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가상의 재판정으로 역사 속 재판을 소환해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사건기록과 증거를 모아, 냉철하고 명석하며 편견에 좌우되지 않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유죄냐 무죄냐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결에 따라 역사의 큰 줄기가 그리고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

## 파트1 : 법은 누구의 편일까? 약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역사적 순간들

### 1강\_ 동물들, 인간의 법정에 서다 : 동물재판

1522년 프랑스에서는 그 지역의 보리 수확물을 밧대로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쥐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쏘아 죽인 벌들의 등지에 관한 재판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에게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을



까요? 아니, 동물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거나 할까요. 여러분이 혹시 변호사라면 이 의뢰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얼핏 보면 너무나 황당한 역사 속 동물들의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강\_ 연극 같은, 너무나 연극 같은 : 소크라테스의 죽음

기원전 399년에 열린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아시나요. 당시 소크라테스는 "신들과 우리 도시국가를 믿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악마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죄를 지었다. 그는 그밖에도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를 지었다. 그 벌로 사형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핏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억지에 가까워 보이는 이 판결문을 보면 역시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이 재판의 이면에는 두 가지 거대한 체제의 충돌이 존재했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의 진실을 다시금 파헤쳐 봅시다!

## 3강\_ 성녀인가, 마녀인가? : 화형대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를 한국의 잔 다르크라고 평가할 정도로 잔 다르크는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한 가장 앞에서 용감하게 전쟁을 이끌고도 결국 화형을 당해야만 했던 비극의 여인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이 어린 소녀 한 명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요? 잔 다르크 재판을 통해 그녀의 역사적 진실에 한발 다가섭니다.

## 4강\_ 신이시여, 왕을 구하소서 : 루이 16세

중세 말 유럽학교의 야자시간. 제임스는 튀는 데 성공하고 루이는 담임한테 걸렸는데... 이번엔 프랑스 혁명기의 재판정으로 갑니다. 구체제의 상징이자 당시 민중의 적이라 불리는 루이 16세는 과연 처형당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판에 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세기의 재판과 비슷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진 적이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루이 16세 재판에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 5강\_ 살인 기계로 전락한 시민들의 변명 : 아우슈비츠 재판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학살. 당시 살인기계로 전락했던 독일 시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인가요? 저는 충실하게 저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재판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시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른바 <세기의 대결 - 인간이 잔인한가! vs 역사가 잔인한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 파트2 : 차별에 대한 심판, 차별을 만든 심판

## 6강\_ 죽어야 사는 여자 :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흔히 ‘명예살인’으로 불리는데, 연간 약 5,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아주 먼 나라, 아주 먼 옛날의 일일 뿐일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재판을 통해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에 뭇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읽어내고, 그 대안을 고민해 봅니다.

## 7강\_ 채털리 부인의 연인 : 외설이나 예술이나

1928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출판사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소설이 출판됩니다. 성에 대한 거침없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 작품은 이후 여러 해적판이 출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사회의 도덕을 망쳤다는 인기만큼이나 큰 비난을 받아야 했고, 1930년 그가 폐결핵으로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작품은 금서로 낙인찍힌 채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외설과 예술, 표현의 자유와 한 사회의 도덕. 어디까지가 외설이고 예술인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는 사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판 ‘채털리 부인의 연인’ 재판을 지금 열어봅니다.

## 8강\_ 내가 왜 일어나야 하나요? :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로사 파크스란 이름의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에 탑승객이 늘어나자 버스 기사는 그녀를 비롯한 몇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여성이 버스 기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이 그녀를 잡아갔습니다. 어째서? 그 여성은 흑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재판의 과정이 그 차별의 편에 선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불행한 역사가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9강\_ 자본의 법정에 선 노동자 : 헤이마켓 사건

1886년 5월 1일, 하루 12시간~16시간의 중노동에 박봉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향한 노동자들의 싸움에 정부는 무력진압으로 응수했고 시위자 수백명과 시위 지도부 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2019년, 누군가는 지금의 노동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고도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129년 전 노동자들의 싸움은 오늘날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지금의 법은 그리고 재판은 과연 노동자라는 약자의 편에 서 있을까요?

## 10강\_ 총을 들지 않은 사람들 : 전쟁에 반대했던 이라크 참전군인들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제1원칙은 바로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의 사명을 거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미국에서는 조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부대를 탈영한 병사가 여럿 생겨났고 심지어 다음 해 3월에는 같은 이유로 전쟁터에 가지 않기 위해 친척에게 다리를 총으로 쏘달라고 부탁한 병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군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조국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한 번 들어볼까요?■

<b>진로 고등</b>	<b>꿈꾸지 않을 자유(5강)</b>  ★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흔한 진료교육에 대한 카운터펀치
<b>참가자</b>	17~19세 고등부 청소년
<b>개강</b>	<오프라인> 2024년 3월 3일~4월 7일 오후 1시~3시
<b>오리엔테이션</b>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넌 꿈이 뭐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지내온 이들 중에 이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청소년으로 사는 시간을 꿈을 찾는다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든지 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는 말이 각자가 가진 가능성을 응원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시대라는 비판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향해 발돋움하기 보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패기가 없다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짜각짜각 일정한 속도로 미래를 앞당겨 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불안과 우울로 맞이하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바랄 즐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제되는 꿈과 직업 소개에 머무는 진료교육을 넘어, 청소년 당사자들과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

### 1강\_ 꿈은 잠잘 때만 꾀다 : '꿈'이란 이름의 욕망

어른들에게 꿈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중간한 꿈을 들이댔다가는 잔소리 듣기 일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른들은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은 어떤 꿈일까요? 대통령? 세계 정복? 어른들이 말하는 큰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2강\_ 옥수수 마을 이야기 : 욕망과 꿈의 상관관계

‘세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환상적인 이국의 섬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도, 두리안처럼 이 땅에 나지 않는 신기한 과일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세계화 덕분입니다. 그 뿐인가요? 고되지만 벌이는 적은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외로운 노총각들이 외국 여성을 사들여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세계화 덕분입니다. 쾌락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떠넘기는 세계화의 시대, 우리의 꿈도 고통을 피해 쾌락을 쫓아 세계로 뿔어나갑니다.

## 3강\_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 노동,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몫

밥을 차리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밥을 짓지 않으면 밥을 차릴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짓지 않고도 밥을 차리지 않고도 밥을 먹습니다. 그 누군가는 무언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그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갈 몫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건가요?

## 4강\_ '장래 희망'이라는 희망 고문 :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꿈을 말하라고 하면 직업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걸맞은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즐겁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적성이고 뭐고 아무 직업이라도 얻고 싶다는 푸념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울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기만 때문입니다.

## 5강\_ 거위의 꿈 : 꿈을 다시 쓰다

꿈을 찾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고 우리의 미래를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에 내맡길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자유를

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꿈’이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싸여진 것의 정체가 결국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한 욕망이라면 그 욕망에 대한 배반이 새로운 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비어있는 꿈의 의미에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채워 넣어야 꿈이 당신의 인생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4년 3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